

근대 건축물 7개의 실록(實錄)

The Chronicles of Seven Modern Architectures in Korea

서언

2011년 제1학기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부에는 일본건축사라고 하는 평범한 건축역사과목이 개설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기존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역사학자와 건축사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공동으로 진행을 했다. 특히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는 건축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자로서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물론 공동 강의자에게도 일본건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일본건축을 직접 답사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자 최종 결과물로 수강생들에게는 우리 주변에 조사가 되지 않았으며 도면도 없는 일제강점기의 건축물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 글은 학생들이 최종 과제물로 제출한 내용을 요약하여 우리나라 건축계의 여러 전문가들에게 곧 사라질 우리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다.

강의목표와 내용

우리는 이번 학기 일본건축사의 강의목표를 “동아시아건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건축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애 순조로이 진입한 건축계의 성과를 고찰하는 것”에 두었으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 첫째, 일본 전통건축의 흐름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 둘째, 일본 사회와 건축문화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 셋째, 일본 전통건축에 내포된 근대적 성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주별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했다.

- 제01주: 주별 강의계획 및 강의자, 과제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수강자 소개
- 제02주: 일본건축의 연구자료, 연구사, 연구자, 연구성과에 대한 소개
- 제03주: 일본건축문화의 역사적 전개와 보편적 특성
- 제04주: 일본전통건축의 구성요소와 근대적 성향
- 제05주: 근대시기 일본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와 분석
- 제06주: 근대시기 일본전통주거의 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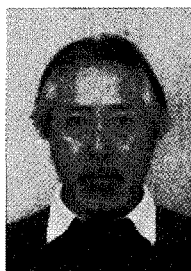


필자 :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by Han, Dong-soo

한동수 교수는 1979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하여 1984년 학부를 졸업하고, 1986년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 후 대만으로 건너가 1994년 국립대만대학에서 중국 청대 도시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1998년 중국 북경 칭화대학에서는

한중고대건축의 비교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부터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와 부교수로 재직하며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필자 : 토미이 마사노리,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Tomii Masanori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는 1972년 일본 요코하마의 가나가와 대학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동 대학의 연구생 과정을 거쳐 1996년 동경대학에서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주택 영단에 관한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건축설계 및 이론, 근대건축사를 가르치고 있다.

- 제07주: 일본 답사(예정)
- 제08주: 특강
- 제09주: 중간고사(시각자료를 통한 평가)
- 제10주: 이토 추우타의 일본전통건축에 대한 평가
- 제11주: 브르노 타우트의 일본전통건축에 대한 평가
- 제12주: 개별 발표 및 토론(1)
- 제13주: 개별 발표 및 토론(2)
- 제14주: 일본건축유적에 관련된 조사자료의 정리 및 토론
- 제15주: 개별 발표 및 과제물에 대한 종합 평가
- 제16주: 기말고사(논술)

이 가운데 7주차의 일본 현지답사는 일정의 조절이 어려워 무산되었고 12, 13주의 개별발표 및 토론은 최종 발표의 형식으로 파티를 겸해서 마지막 주에 진행되었다. 또한 8주차의 강의는 일본 전통건축의 색채와 장식 분야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쿠보테라 시게루 건축장식기술사연구회 소장님을 모시고 덕수궁 정관원에서 공개강좌의 형식으로 개최하였다.(그림1) 특히 마지막 주의 조별 발표는 외부 인사를 2인 초청하여 비전공자의 눈에 건축인들의 발표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들어보기도 했다.



그림1. 이번 강좌를 위해 만든 강의자 두 사람의 캐릭터와 쿠보테라 소장의 강연 모습

도면으로 남긴 7개 지역 건축물의 실록

이번 수업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된 조사대상 건축물은 모두 7개소 12개동의 건물이다. 이 가운데 조선은행 감호 사택은 기존에 조사된 바가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의 변형된 모습을 충실히 기록했으며, 한강로 Y씨 주택도 기존에 간략한 조사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상세한 도면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들은 모두 도면이 없던 것으로 이번에 처음 도면이 작성되었다.

전라북도 화호리 응본(熊本)농장 사택(김해환, 권준오, 양승필)

이 건물이 위치한 화호리는 생활사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일제강점기의 마을 경관과 구조가 잘 남아 있는 곳이다. 응본농장의 사택들

은 이 마을을 구성하는 주요한 건물로서 대부분 1920년대 전후에 지어졌으며 이번에 조사된 것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농장주의 건물과 일본인 사택, 조선인 사택 그리고 창고와 병원 등의 공공건물 등이다. 농장주의 건물은 1급 사택이라고도 불렸으며 마을에서 명당터로 알려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의 외관과 내부평면은 그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다미가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창호와 반자를 비롯하여 도코노마 등 주요 부재의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외부에는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으나 정원의 모습은 사라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중구 회현동 일출아파트(박순관, 장지정, 정승이)

이번에 조사된 건물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출아파트 또는 히노데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대략 1930대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신관과 구관 각 1동씩 모두 2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관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내부공간은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일부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다. 지어질 당시의 정확한 용도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주변의 정황으로 살펴보면 독신자를 위한 관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거주자들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병원의 숙소였다는 증언도 있다. 건물 전체의 배치평면은 ㄷ자 형태의 중복도 형식이고 실측결과 동경지역의 다다미 크기에 가까웠다. 각 실의 평면형식은 모두 3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동 화장실과 세탁실이 1, 2층에 각각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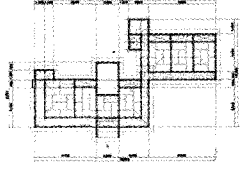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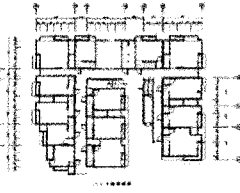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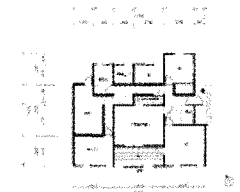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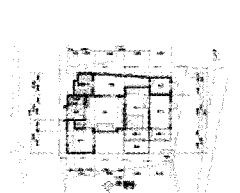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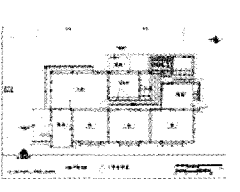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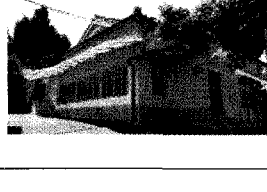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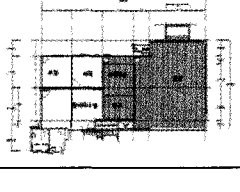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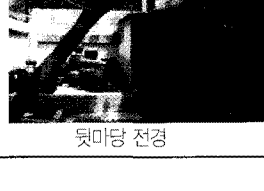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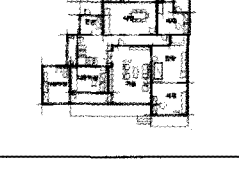
서울 중구 신당동 C씨 주택(소재남, 김희교, 유재현)

이 집은 1930년대 지어진 문화주택의 하나로 당시 조선도시경영 주식회사가 개발한 신당리 주택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52.07㎡이고 구조는 목조와죽이다. 현재 이 주택의 설계자와 시공자는 모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건물의 외관은 대체로 건축 당시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내부공간은 사용하면서 다소 변형이 있으나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호와 반자 역시 원형이 잘 남아 있다. 건물의 내부평면은 전형적인 중복도형이며 1층은 생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응접실과 서재로 사용되었다. 이 주택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정원으로써 일본식 정원에 한국의 장독대 문화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점이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J씨 주택(김현균, 김진아, 서경덕)

현 거주자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헌병대장의 주택이었다고 한다. 건물의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87.87㎡이며 구조는 목조와죽이다.

사진과 도면으로 남긴 7개 건축물의 개요

건축명	전경사진	세부사진	도면 (평면도)
화호리 구마모토 주택		 내부사진	
회현동 일출아파트		 내부사진	
신당동 C씨 주택		 창호사진	
후암동 J씨 주택		 과거사진	
한강로 Y씨 주택		 옛 양조장 창고 사진	
청파동 동일교 본부교회		 내부 구조 사진	
후암동 조선은행 갑호사택		 뒷마당 전경	

온돌과 다다미가 공존하는 절충식의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관은 증축으로 인해 적지 않은 변형이 가해졌고 실내 공간 역시 필요에 따른 공간의 통폐합으로 큰 변화가 있으나 기본적인 공간구획의 방식을 추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계단실이나 창호 등은 대부분 원래의 것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무엇보다도 거주자의 생활과 함께 공간이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Y씨 주택(심은애, 한병수)

이 건물은 수년전 NGO 단체에서 이미 일부 조사를 한 바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보다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였다. 건물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57.85㎡로 1941년도에 건축되었으며 특이하게도 주거와 사무를 겸하고 있다. 사무공간은 1층의 전면부에 할애를 했고 1층의 후면부와 2층은 주거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 외에도 주변에는 창고와 차고, 양조장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있었으나 현재는 차고와 주택 이외에는 철거된 상태이다. 외관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내부공간은 오랜 시간의 흐름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변형과 노후화가 심하게 되어 있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 통일교 본부교회(손지혜, 김민아, 강수정)

이 건물은 원래 1913년 상동교회 진덕기 목사가 지은 연화봉 교회로 지어졌으나 이후 성결교회로 사용이 되기도 했으며, 1955년 통일교를 세운 문선명 선생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교세를 확장하는 계기 되었다. 현재 통일교의 성지로 되어 있어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 본 건물 이외에도 주변에 있는 여러 채의 건물을 구입하여 확장한 관계로 매우 복잡한 실내동선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연화봉 교회로 사용되던 일본식 건물만 실측을 하였다. 이 건물의 규모는 2층, 178.51㎡이고 목조와죽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전통주택의 양식이 변형된 교회 건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게 보이는 평면형식의 건물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분적이 보수를 통해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으나 보수과정에서 원래의 재료 위에 덧붙여 시공을 함으로써 현재도 예전의 마감재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현재는 통일교 및 문선명 목사와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여 일종의 박물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조선은행 갑호 사택(김지훈, 정지원)

이 건물이 속해 있는 지역은 1980년대 중반 한양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조사가 되어 널리 알려진 곳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상당히 많은 사택이 존재를

했으나 거의 철거되고 현재는 2~3채 정도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예전의 조사를 바탕으로 현 사용자가 증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함으로써 30여년의 시간적 흐름 속에 공간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일본식과 서양식을 절충한 것으로 증축도형식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359㎡이며 구조는 목조와죽이다. 지은 지 80여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다른 일본식 주택에 비하여 원형이 많이 손상되었는데 내부공간의 분할과 전용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증개축을 통해 외관의 형상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있다. 하지만 건립 초기의 평면에서 나타나는 증축도에 의한 거주 부분과 증축부분의 구분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맺음말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번에 조사된 7채의 건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정밀실측을 통한 도면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건물의 특성과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자료가 생산되었다. 해방된 지 벌써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흔적은 철거를 해서 없애 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보존을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보다 더 나은 건물을 짓고 후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들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없다. 원하던 원치 않던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간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현재 적지 않은 건축사들이 전국의 각 대학에서 건축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 조금만 시간을 내고, 시선을 돌려 한 사람이 한 학기에 한 개의 건물에 대한 기록이라도 남겨 준다면 매년 그 쌓여지는 양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있는 건물들이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어떻게 보면 「건축사」지와는 그렇게 어울리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여 굳이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건축계의 전반의 의식전환을 기대하는 마음에서이다. 끝으로 이렇게 정리된 자료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학생들의 이번 조사가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신 각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